

지난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비엔나에서 열린 제 82차 OPEC(석유수출국기구)총회는 당초 예상됐던 대로 내년도 油價를 배럴당 18달러선에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제 82차 OPEC총회 결과와 전망

지금까지 OPEC총회가 대개 그래왔듯이 이번 총회 역시 그렇게 밝은 전망속에서 개최된 것은 아니었다. 이란·이라크전쟁은 이제 美國의 군사개입까지 초래하면서 지리한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어 첨예화된 감정대립과 함께 예측못할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전쟁의 와중에서 약화되기 시작한 OPEC의 결속은 석유시장을 지키기 위한 OPEC의 제도적 장치들을 유명무실화시켜 보다 본질적 대책을 요구하는 시점에 이르렀으며, 이와같은 OPEC의 이완된 상태에서 나타난 공급과잉현상은 시급한 시장정책을 필요로 하는등 OPEC에 부과된 과제는 현상적인 것으로부터 본질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難題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이번 총회의 주요의제는 ① 公示價의 유지 또는 상향조정, ② 산유쿼터의 상향조정, ③ 원유생산량 감시제도 확립방안등으로 집약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油價조정문제는 회원국간에 견해가 엇갈렸다. 사우디아라비아등 온건파 회원국은 배럴당 18달러의 現油價의 고수를 주장한 반면, 이란등 강경파 회원국은 달러貨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등을 들어 배럴당 2달러 정도의 油價인상을 주장했다. 산유쿼터는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상향조정을 희망했다.

따라서 이번 총회는 모든 難題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보다는 現狀의 인정과 이 테두리안에서의 현실적 대응이라는 시각에서 합의가 유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OPEC가 다시 결속했던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公示價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自由世界の 石油수급〉

(單位: 백만B/D)

	1986	1987 ¹⁾					1988 ²⁾				
		1/4	2/4	3/4	4/4	年間	1/4	2/4	3/4	4/4	年間
石油 소비 ³⁾	47.8	49.1	46.8	47.7	48.9	48.1	49.3	46.9	47.2	49.1	48.1
石油 供給 計	48.7	46.6	47.6	50.0	49.4	48.4	46.7	46.7	48.6	49.2	47.9
非 O P E C ⁴⁾	25.2	25.5	25.2	25.6	25.9	25.5	26.1	25.6	25.6	25.7	25.7
美 國	10.3	10.1	10.0	10.1	10.2	10.1	10.1	9.9	9.7	9.6	9.8
北 海	3.6	3.8	3.4	3.7	3.7	3.6	3.8	3.5	3.6	3.8	3.7
백 시 코	2.8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기 타	8.5	8.7	8.9	8.9	9.1	8.9	9.3	9.3	9.4	9.4	9.3
共産 圈 수 출 등 ⁵⁾	5.2	5.0	5.6	6.0	5.5	5.5	5.1	5.6	6.0	5.5	5.6
O P E C 原 油 生 産	18.3	16.1	16.8	18.4	18.0	17.3	15.5	15.5	17.0	18.0	16.6
石油 在 庫 變 動	+0.9	-2.5	+0.8	+2.3	+0.5	+0.3	-2.6	-0.2	+1.4	+0.1	-0.2
(石油 재고 일 수) ⁶⁾	66	65	65	67	67	67	66	66	65	66	

註: 1) 추 정

2) 전 망

3) 국제병커링, 精製燃料 및 정유손실 포함

4) NGL 및 콘덴세이트 포함

5) OPEC NGL, 精製増分 (processing gain) 포함

6) 精油공장보유 分期末 石油재고량을 다음 분기의 石油소비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임

〈資料〉 Petroleum (Economics)Ltd., Short / Medium Term Oil Market Outlook, Sept. 1987.

인상은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사우디의 現油價유지정책에 밀리고 말았다. 사우디의 장기전략적 관점은 OPEC産 원유수요의 실질적 증가가 있을 경우에만 公示價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질적 수요증가가 없는 상황에서의 油價인상은 과거에 경험했듯이 소비국의 수요감퇴와 非OPEC의 산유량 증대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OPEC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또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公示價 인상을 했을 경우 쿼터초과생산이나 할인판매등의 위반을 유도하며 오히려 시장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87년중 OPEC産 원유수요는 전년보다 약1백만B/D 감소한 1천7백30만B/D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석유수요증가세의 둔화와 非OPEC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OPEC수요는 1천7백만B/D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비수기인 내년 상반기의 OPEC수요는 1천5백50만B/D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OPEC의 현재의 산유량(1천8백만B/D)을 감축하지 않는 한, 앞으로 油價약세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게다가 證市과국의 영향으로 세계의 실물경제는 침체의 우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 세계석유소비의 금년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도 국제원유가격은 수급구조적으로는 약세를, 페르시아灣 긴장고저에 따라서는 등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현행 18달러 고정유가제를 기준에 볼 때, OPEC 현물유가는 대체로 배럴당 17~18달러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2년간 국제원유가격은 순환적인 사이클을 그리면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OPEC는 앞으로 석유시장이 안정될 경우 원유생산확대를 꾀할 것이다. 그 결과 시장이 침체되어 실질가격이 배럴당 18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생산조정정책을 통해 현수준의 油價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